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 - 06호 / 2월 9일

외환보유고 투입을 통한 중국국유상업은행 개혁의 문제점

1. 개요

- 2003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4대 국유독자상업은행(이하 국유상업은행)의 주식제 개혁과 주식시장 상장을 최종 결정한 이후 국유상업은행의 개혁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음.
- 2006년 은행업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중국 국내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해결 및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음.
- 국무원은 이를 위해 4대 국유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을 단계적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추진키로 결정하였는바, ▲2004년 말까지 건설은행의 주식시장 상장, ▲2005년까지는 중국은행의 상장, ▲2006년 공상은행의 상장, ▲2007년 농업은행의 상장 등 목표를 결정하였음.
- 부실채권 해결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450억 달러의 외환준비금(외환보유고)을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음.

-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은행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¹⁾

2. 외환보유고 투입을 통한 은행 上場 지원

□ 2003년 9월말 기준으로 5등급 분류방식에 따른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21.38%로,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음.

- 반면 주식제상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8.4%, 외자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4.26%임.

-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시장 상장은 필요자본의 확보, 지배구조의 명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자기자본비율 8% 이상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관건임.

□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시장 상장요건에 필요한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자금마련 방안은 내부자금의 축적, 채권 발행, 재정 지원, 외자나 민간자본 투입 등의 방법이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용이치 않음.

- 은행산업 개방 시한이 촉박하고 은행의 수익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자금을 축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함.

- 채권 발행은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.

- 1997년 이후 지속된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 여력도 크지 않음.

- 민간 및 외자 자금을 도입하는 것은 상업은행의 재산권제도 개혁과 연계되어 있으며 투명성과 실효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.

1) 이 문제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인사로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巴晷松 부소장을 들 수 있음.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외환준비금 중 일부를 국유상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요자금을 큰 위험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.

-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,000억 달러에 달하나 외채 규모는 1,800억 달러에 그치고,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국유상업은행에 지원한다 해도 대외 지불능력에는 문제가 없음.

□ 재정자금 지원과는 달리 명확한 책임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함.

- 전문적인 관리기구로서 중앙외환투자회사(中央彙金投資有限責任公司)를 설립하고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, 국가외환관리국이 주요 주주가 되는 방안이 마련됨.

3. 국유은행 부실 해결을 위한 외환보유고 투입의 문제점

□ 그러나 이번 외환보유고 투입으로 단기적인 구조조정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.

- 중국은 1998년 1조3,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지만, 이후에도 부실채권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왔음.

□ 첫째, 45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투입으로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이 자기자본 8%의 상장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음.

-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나 영업수입은 개선되지

않아 다시 자기자본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□ 둘째,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메카니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- 1998년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4대 자산관리공사를 설치하고 10년의 기한을 설정하였지만, 지금까지의 부실자산 처리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함.

□ 셋째,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자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.

- 역사적으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자산은 국유상업은행이 전반적인 경제개혁 비용을 담당해 오면서(특히 1992년, 1997년) 심화되어 왔는데, 이같은 국유은행의 역할을 향후에도 주목해야 함.

□ 넷째, 외환준비금 투입 이후 중앙외환투자회사가 이들 국유상업은행의 주요 주주로 등장하면서 어떤 인센티브와 규제로 은행 운영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음.

- 특히 중앙외환투자회사의 기능은 싱가포르의 국가저축투자회사의 그것과 비슷한데, 실제 이 회사는 투자효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.

□ 다섯째, 대규모 자금 투입 이후 국유상업은행이 부실자산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-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은행내부의 위험관리 제도와 신규 부실자산 억제 문제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들 국유상업은행이 부실자산 관련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산정할 것인지 신뢰 확보 문제가 남아 있음.

- 따라서 이번에 외환보유고 투입을 통해 국유상업은행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내부책임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며, 무엇보다도 국유상업은행 자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함. (***)